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’ 2R 오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 **김민솔, 정윤지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14일(목) ~ 8월 17일(일) |
| 3 | 장 소 | 몽베르컨트리클럽 [가을(OUT) / 겨울(IN)]  |
| 4 | 주 최 | 메디힐, 한국일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10야드-예선, 6,544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3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박지영, 이예원, 박현경, 방신실, 홍정민, 노승희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김민선7, 김민주, 정윤지, 박혜준, 배소현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이다연, 김아림, 안나린, 최혜용, 성아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30분[2라운드] 11시 ~ 17시30분[3라운드] 09시30분 ~ 16시[최종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|

**◈ 김민솔, 2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130타(65-65) \*단독 2위(2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725>

**Q. 이틀 연속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 소감은?**

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체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, 나름대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하다.

**Q. 보기 없이 7언더파를 이틀 연속 기록했는데,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?**

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됐다.

**Q. 좋았던 부분은?**

샷 미스가 꽤 있었지만 쇼트 게임에서 리커버리를 잘한 것 같다.

**Q. 리커버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?**

코스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느꼈고, 그린 플레이도 예상보다 수월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다.

**Q. 정규 투어에서 두 라운드 연속 상위권 성적을 거두었는데?**

너무 기쁘다. 남은 이틀도 욕심부리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겠다.

**Q. 각오는?**

목표를 정하면 잘 안 되는 편이지만,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그래도 우승이 목표다.

**◈ 정윤지, 2라운드 중간합계 13언더파 131타(68-63) \*단독 3위(2라운드 종료시점)**

**-코스레코드 경신(9언더파 63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820>

**Q. 오늘 코스레코드를 경신한 소감은?**

사실 코스레코드를 작성한 줄도 몰랐다. 10언더파 정도 치면 코스레코드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,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았다.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뜻깊고 행복하다.

**Q. 하루에 9언더파를 친 적이 있었나?**

작년에 ‘2024 동부건설 ·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’에서 9언더파를 쳤지만, 스트로크가 아닌 스테이블포드 방식이라 스코어로 기록이 남지 않았다. 그때가 라베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 아쉬웠는데, 오늘은 제대로 인증받은 것 같아 영광이다.

**Q. 오늘 잘된 점은?**

파온율이 좋았고, 핀에도 잘 붙어서 찬스가 많았다. 퍼트도 잘 들어가서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다.

**Q. 초반 파 행진 후 버디를 연속으로 기록했는데, 당시 상황은?**

처음에는 몰랐는데, 캐디가 ‘나이스 싸이클 버디’라고 말해줘서 알았다. 쉽지 않았지만 해냈기 때문에 아주 뿌듯했다.

**Q. 우승 경쟁에 대한 각오는?**

지금까지 두 번 우승했는데 모두 3라운드 대회였다. 4라운드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. 남은 라운드는 날씨에 맞춰 플레이할 계획이다. 오늘은 오늘대로 만족하고 내일은 또 새롭게 임하겠다.